

요한복음의 새 계명에 담긴 새로움의 의미

우성훈*

1. 서론

“서로 사랑하라.”(13:34-35; 15:12, 17)는 요한복음의 사랑 계명은 특별히 13:34에서 ‘새 계명’이라는 독특한 명칭을 얻는다(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이때 사용되는 형용사 ‘카이노스’(καινός)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2회만 쓰이는데, 사랑 계명을 지칭할 때와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을 묘사할 때(19:41) 뿐이다.¹⁾ 요셉의 새 무덤[‘므네메이온 카이논’(μνημεῖον καινόν)]은 41절에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움의 뜻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새 계명의 경우 과거에는 기록된 적이 전혀 없는 계명이라고 풀기는 어렵다. 고대 문헌이나²⁾ 요한복음의 신학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구약에서 사랑 계명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레 19:18; cf. 신 6:5). 이로 인해 학자들은 사랑 계명의 새로움이 이전의 사랑 계명과 분리된 독특한 개념이어야 한다고

*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신약학

- 1) 의아하게도 형용사 ‘카이노스’(καινός)가 요한복음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 전무하다.
- 2) Cf.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8.3.1156b33-1157b14; Cicero, *Fin.* 3.19.62-63; Philo, *Virt.* 103; 1QS 1.4-5, 9-10; 5.24-25; 10.26. 따라서 사랑 계명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완전히 생소한 윤리적 규범은 아니었을 것이다[R. Bultmann, *The Gospel of John*, G. R. Beasley-Murray,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1971), 527-528].

전제하고,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요한 신학이나 새 계명이 속한 내러티브상의 정황에 기초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공관복음과의 관계에 비추어 새로움의 독특성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개념을 복음서 내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선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요한의 새 사랑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복음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구약의 옛 계명의 전제 개연성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적어도 사랑 계명에 관한 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관련성이 새 계명의 새로움 이해에 중대한 도움을 주는지 확증하기 어렵다. 본 소고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사랑 계명에 담긴 새로움을 요한복음뿐 아니라 유사한 언어가 등장하는 요한 서신과의 상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과의 긴장 관계라는 틀 안에서 이해할 때 그 새로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랑 계명의 새로움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개관해 그 새로움이 요한복음 내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핀 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이슈들을 재고해 볼 것이다.

2. 새로움의 의미와 관련된 주요 이슈

새로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상호 사랑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카도스 에가페사 휘마스’(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13:34c]에 기초한 기독교적 해석이다. 이는 같은 절에서 선행하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엔톨렌 카이넨 디도미 휘민’(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34a]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근거하여, 예수의 희생적 사랑은 계명이 명하는 상호 사랑의 근원이자 모범이 되므로 새롭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일찍이 1881년에 출판된 웨스트콧(B. F. Westcott)의 주석에서도 발견된다. 그 계명의 새로움은 동기와 범위의 새로움이라는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라는 모범이 성육신에서 시작되어 그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권세로 계시되었다.³⁾ 이는 십자가에서 시위된(demonstrated) 예수의 구속적 사랑이 이전의 어떤 사랑과 비교될 수 없고 전례가 없다는 의미에서 사랑 계명을 요셉의 새 무덤과 같은 전무한 계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필자가 아는 한 이견이 없으며,⁴⁾ 가장 최근에는 스티븐 부어윈드(Stephen Voorwinde) 역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⁵⁾

사랑 계명의 새로움은 본문 자체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랑 계명의 중심에는 그 기본 원리인 ‘카도스 에가페사 휘마스’(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가 있다. 따라서 그 명령의 새로움은 사랑의 동기와 범위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는데, 이는 신자들이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서로를 향해 지녀야 하는 새로운 특성의 사랑이다.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예수가 그들에게 부은 사랑의 진정한 반영이다.

-
- 3) B. F. Westcott, *The Gospel of St. John: The Authorised Vers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 (London: James Clarke, 1958; org. ed. 1881), 197.
- 4) Cf. R. Schnackenburg, “Mitsmenschlichkeit im Horizont des NT,” G. Bornkamm, ed., *Die Zeit Jesu* (Freiburg: Herder, 1970), 70-92, 78; idem, *The Moral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London: Burnes & Oates, 1965), 325; Furnish, *The Love Command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72), 138; A. Lacomara, “Deuteronomy and the Farewell Discourse,” *CBQ* 36 (1974), 77; R. F. Collins, “Commandment,” *Anchor Bible Dictionary* 1 (New York/London/Toronto/Sydney/Auckland: Doubleday, 1992), 242; Johannes Behm, “καὶνός,”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3 (Grand Rapids: Eerdmans, 1974), 450;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484; J. Augenstein, *Das Liebesgebot im Johannesevangelium* (Stuttgart: Kohlhammer, 1993), 22-24.
- 5) Stephen Voorwinde, *Jesus’ Emotions in the Fourth Gospel*, LNTS 284 (London/New York: T & T Clark, 2005), 222; 김기원, 서영환,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 구조론적 입장에서 본 요한복음 13장-17장』 (서울: 엘멘, 2000), 397. 역시 계명의 동기가 되는 예수의 사랑에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이 쓰였다고 말한다. 박창영, 『요한복음』 (안양: 성결대 출판부, 2008), 337도 보라.

또한 학자들은 기독교에 근거하여 새로움에서 종말론적 의미를 찾기도 한다. 새 계명은 예수에 의해 시작된 새 시대의 계명이라는 데 기초한 해석으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볼트만(R. Bultmann)이다. 그에 따르면 사랑 계명이 새로운 것은 그것이 오랫동안 익히 알려져 왔지만 종말론적 공동체의 율법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랑 계명의 새로움은 역사적인 특징이 아닌 그 본질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가 새로운 세상에서 시작한 구원의 종말론적 시간을 반영하는 본질을 의미한다고 볼트만은 말한다.⁶⁾ 이렇게 새로움을 새로운 세상이나 새 질서로 이해할 경우 구약을 비롯한 이전 전승에 사랑 계명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은 요한의 종말론적 개념의 새로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많은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데,⁷⁾ 예를 들어 해리스빌(R. A. Harrisville)은 볼트만의 견해에 입각해 그 새로움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⁸⁾

새 계명은 새로운 종말론적 공동체의 규칙이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계명으로서, 그 계명의 실현 가능성은 그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일원

6) Bultmann, *The Gospel of John*, 527.

7) Victor P. Furnish, *The Love Command in the New Testament*, 139; Collins,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John 13:34)," *These Things Have Been Written: Studies on the Fourth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1990), 240-241; W. Schrage, *The Ethics of the New Testament*, D. A. Greene,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315; G. R. Beasley-Murray, *John*, WBC 36 (Dallas: Word Books, 1987), 247; Johannes Nissen,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New Testament Love Command in Relation to Hellenistic Judaism," Peder Borgen and Soren Giversen, eds., *The New Testament and Hellenistic Judaism*, (Oxford: Aarhus University Press, 1995), 142; F. C. Fensham, "Love in the Writings of Qumran and John," *Neotestamentica* 6 (1972), 71은 새 계명을 종말론적 교회의 율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8) R. A. Harrisville, "The Concept of Newness in the NT," *JBL* 74 (1955), 79. 소기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새로움," 「성서마당」 34 (1999), 8-11의 경우 '새 계명' 본문을 포함하여 '카이노스'가 쓰이는 신약의 여러 본문들에서 종말론적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찾는다.

이 된 이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 계명은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새롭지 않으나 예수께서 주셨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다. 새 계명의 선포는 새 시대가 밝아왔다는 확인이며, 그 계명은 예수가 죽음을 통해 시위된 사랑에 비추어 실천될 것이다.

한편 새로움에 대한 해석은 위 진술에서도 나타나듯 새 시대의 백성이 예수와 연합하도록 기능하는 새 언약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움을 언약 개념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그 새로움을 공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에서 언급되는 새 언약(눅 22:20; cf. 마 26:28; 막 14:24)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는 유명한 학자들 중 하나는 브라운(R. E. Brown)이다. 그는 새 계명이 반복되어 설명되는⁹⁾ 요한복음 15:12-17과 연결된 요한복음 15:1-8을 긴밀한 상호 관계(안에 거함, 4, 5, 6, 7절)가 강조되는 언약 관련 본문으로 보고, 요한의 새로움이 마지막 만찬에 나타나는 언약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요한의 ‘새 계명’을 누가복음 22:20의 기초적인 규정(basic stipulation)으로 이해한다.¹⁰⁾ 퍼니쉬(V. P. Furnish)의 경우 새 계명의 배경을 세족 사건이 등장하는 13장으로 보고, 사랑 계명이 마지막 만찬의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한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 속에 공관복음의 예수가 제정한 성만찬과의 유사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¹⁾ 분명히 13장이나 15장 어디에서도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내 언약의 피’[το 하이마 무 테스 디아테케스(τὸ αἷμά μου τῆς διαθήκης)]나 ‘새

9) David Wenham, “The Enigma of the Fourth Gospel: Another Look, in Understanding, Studying and Reading,” C. Rowland and C. H. T. Fletcher-Louis, ed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17도 보라.

10)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 AB 29 (New York: Doubleday, 1970), 614(비교. Beasley-Murray, *John*, 247). 브라운(Brown)은 요한의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의 특징을 사해 문서에서도 발견한다(1QS 1.8, 3.11-12, CD 6.19, 20.12). 이 예문들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를 언약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

11) Furnish, *The Love Command in the New Testament*, 139.

언약[헤 카이네 디아테케(ἡ καινή διαθήκη)]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수의 사랑 계명이 ‘새 계명’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디아테케’(διαθήκη)라는 단어의 부재와 상관없이 여전히 새 언약을 상기시킨다. 사랑 계명이 위치한 마지막 만찬이라는 문맥 역시 이러한 방향의 해석을 가리킨다.¹²⁾ 그러므로 누가 복음에는 명시되었던 예레미야의 약속(렘 31:31)에 담긴 새 언약이 요한복음에서는 암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한의 새 언약을 조명하고 있으며, 역으로 요한의 새 계명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성취한다고 본다.

또 다른 입장은 사랑 계명의 새로움을 공관복음의 만찬 본문(eucharistic text)이 아닌 신명기에 나타나는 언약 개념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다. 콜린스(R. F. Collins)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공식문(formula)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요한의 사랑 계명은 신명기의 언약 개념에 기초한 새 언약의 실재라고 제안한다.¹³⁾ 콜린스에 따르면 신명기 언약(29장)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이별 상황 속에서 언급되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이별 강화의 맥락 속에 위치한 사랑 계명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깨끗함(13:10-11); 상관(10:8)].¹⁴⁾

다만 위와 같은 종말론적 혹은 새 언약과 관련시킨 해석은 기독교적

12) Johannes Beutler, “Das Hauptgebot im Johannesevangelium,” Karl Kertelge, ed., *Das Gesetz im Neuen Testament* (Freiburg/Basel/Wien: Herder, 1986), 234; N. T. Wright,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59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요한의 예수가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새 언약을 제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3) Collins,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243; 김세운,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1), 170. 역시 시내산의 옛 계명과 요한복음의 새 계명을 대조시켜 이해한다.

14) Collins,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234-236.

접근과는 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주로 사랑 계명 본문이나 문맥 안에 종말론적 혹은 언약 관련 언어가 부재하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우더(W. R. G. Loader)는 사랑 계명의 새로움이 예수가 가져온 종말론적 시대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문맥을 볼 때 종말론적 의미가 암시되고는 있으나 핵심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사랑 계명이 신명기 언약에서 왔다는 견해에 로우더는 구약의 언약 개념이 예수의 계명과 결부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복종’이라는 주제에서 암시되지만 언약 언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한다.¹⁵⁾ 한편 사랑 계명을 성만찬의 새 언약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해 콜린스는 언약 본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요한복음 15:1-8이 아닌 예수의 세족 사건(13:3-17)을 새 계명의 직접적인 문맥으로 보고, 그곳에서 성만찬과 관련된 명백한 진술을 찾을 수 없다고 역설한다.¹⁶⁾ 이와 유사하게 부어윈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언약적인) 설명은 분명히 호소력이 있으나 공관복음의 성만찬 상황이 요한복음 기사에 도입될 수 있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요한복음 13장에 언약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랑 계명이 새롭다고 지칭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간접적인 이유를 제공한다.”¹⁷⁾

15) William R. G. Loader, *Jesus' Attitude towards the Law*, WUNT 9 (Tübingen: Mohr Siebeck, 1997), 477, 각주 92.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본 소고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16) Collins,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242; Dunn, “The Washing of the Disciples’ Feet in John 13:1-20,” *ZNW* 61 (1970), 251.

17) Voorwinde, *Jesus' Emotion in the Fourth Gospel*, 222;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484. 역시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된 새 언약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은 없다. 한편 Andrew C. Brunson, *Psalms 118 in the Gospel of John: An Intertextual Study on the New Exodus Pattern in the Theology of John*, WUNT 158 (Tübingen: Mohr Siebeck, 2003), 158, 각주 66은 제도적인(institutional) 용어들이 요한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요한복음 전체에서의 성례적 언어(sacramental

위와 같이 새 계명에 대해 종말론이나 언약과 관련된 접근 방법에 적극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은 사랑 계명의 내러티브상의 문맥인 이별 상황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로우더는 그 계명을 ‘새롭다’고 부르는 것을 예수의 부재로 야기될 새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다고 제안한다.¹⁸⁾ 세고비아(F. F. Segovia) 역시 새로움의 의미 파악을 위한 여러 시도를 열거한 후 “제시된 이유들이 일정하며 내용의 폭이 광범위하다. 오히려 한층 단순한 이유를 본문 내부를 기초로 하여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그 계명은 다름 아닌 이별 교훈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주장한다.¹⁹⁾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제자들이 예수가 떠난 후 처하게 된 이별 상황이 새 계명을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고별 장르로 분류되는 12족장의 언약서(*The Testaments of the Twelve Patriarchs*)나 신명기에도 사랑 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이 등장하지만(cf. T. Gad 6:1-3; 7:7; T. Dan. 5:2-3; 신 4:23; 7:9) 어디에서도 새 계명이라는 명백한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사랑을 명하는 새 계명이 요한 서신에서는 나타나 지만(요1 2:7-8; 요2 5절), 그 문맥은 이별이라는 주제와 무관하다. 결국 이별 상황과 새로움의 상관성은 절대적이라 볼 수 없게 된다.

계다가 사랑 계명의 문맥 안에 명확한 종말론적 언어가 없다는 반대 입장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새 계명의 문맥에 종말론적 의미가 분명치 않다는 로우더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가 명시하진 않지만 아마도 종말론적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15:1-8²⁰⁾을 새

language)의 부재를 주장한다.

18) Loader, *Jesus' Attitudes towards the Law*, 477, 각주 92.

19) F. F. Segovia, *The Farewell of the Word: The Johannine Call to Ab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76, 각주 37. 또한 Kotila, *Umstrittener Zeuge: Studien zur Stellung des Gesetzes in der johanneischen Theologiegeschichte*, *Annales Academiae Scientiarum Fennicae Dissertationes Humanarum Litterarum* 48 (Helsinki: Suomalainen Teideakatemia, 1988), 211-212를 보라.

20) 예를 들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계명의 문맥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계명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역할을 하는 15:9-17이 15:1-8과 단절되었다기보다 두 본문이 공유하는 중심 주제[과실 맺기(8절과 16절), 안에 거하기(4-5절과 10절)]를 고려할 때 오히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²¹⁾

더욱이 사랑 계명의 새로움의 의미 탐구에서 기독교적 요소와 종말론적 요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입장은 종말론적 새 시대, 질서가 다름 아닌 예수를 통해 이미 도래했다는 요한의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cf. 4:23; 5:24; 11:24-25)과 맞지 않는다. 설령 사랑 계명의 본문과 문맥에 종말론적 언어가 분명하지 않다 해도, 이는 계명의 새로움에 종말론적 의미가 전혀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의 명백한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에게 있어 종말론과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의 반영으로 봐야 한다. 종말론적 새 시대를 연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기준의 사랑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에 이미 종말론적인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²²⁾ 이런 면에서 슈라게(W. Schrage)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15:12의 구성 요소인 ‘as’가 제시하듯 (cf. 13:15) 그러한 기독교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이 대체적으로 종말론적인 슬어라는 점도 사실이다. 사랑은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의 지표이자 그리스도의 새로운 실재에 암시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이다.”²³⁾ 따라서 새 계명이 말하는 ‘새로움’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종말론적으로 실재(reality)하게 되었음²⁴⁾을 뜻하는 종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가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15:6)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 아직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미래적 심판을 경고하는 실현된/미래적(realized/futuristic)인 종말론적 메시지다.

21) Carson, *The Gospel According John*, 520에서 1-8절을 9-17절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주석한다. Beasley-Murray, *John*, 269; Lincoln, *St. John*, 405도 보라. 따라서 콜린스가 새 계명의 문맥으로 15:1-8을 제외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242).

22) 또한 Furnish, *The Love Command in the New Testament*, 138을 보라.

23) Schrage, *The Ethics of the New Testament*, 315.

론적 새로움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새 계명과 언약적 우정(covenantal friendship)

추가로, 사랑 계명의 새로움을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해석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요한의 사랑 계명이 공관복음의 마지막 만찬(눅 22:20; cf. 마 26:28; 막 14:24)에서 제정된 새 언약을 암시(allusion)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해당 문맥에서 ‘디아테케’나 이와 관련된 개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같은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사랑 계명의 배경 사건이 되는 세족 사건과 공관복음의 마지막 만찬이 죽음을 직전에 둔 마지막 모임이라는 정황상 서로 동일한 시점을 가리킨다 해도, 분명 요한이 언약의 피(마 26:28; 막 14:24)나 새 언약(눅 22:20)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²⁵⁾ 공관복음의 성만찬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살과 피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6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6:53-59),²⁶⁾ 적어도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사랑 계명의 문맥으로 볼 수는 없다.

24) Beasley-Murray, *John*, 247. 이와 유사하게 Lindars, *John* (Sheffield: JSOT Press, 1990), 463 역시 새 계명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창조된 새로운 상황에서 도래할 시대(the Age to come)의 조건들이 이미 예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5) 세족 사건은 주로 구원론적 해석과 윤리적 해석으로 풀이된다. 즉, 발을 씻은 예수의 행위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구원을 위한 죽음의 예표로 보거나(13:6-11), 그 행위를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겸손과 섬김의 모범(13:12-18)으로 보는 것이다 [cf. Marianne M. Thompson, “‘His Own Received Him Not’: Jesus Washes the Feet of the Disciples,” Ellen F. Davis and Richard B. Hays, eds., *The Art of Reading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2003), 258.]

26) D. M. Smith,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7), 158.

그렇다고 본 소고를 통해 계명이 공관복음의 새 언약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고,²⁷⁾ 언약 개념이 새 계명에 전무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 계명에 내포된 언약 개념을 공관복음보다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구약의 언약 개념에서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본 소고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아래의 논의는 1) 새로운 사랑 규범이 구약의 언약과 상관 관계에 있는 ‘엔톨레’(ἐντολή)라는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 2) 사랑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고유한 정체성이 구약의 언약 백성처럼 세상에 드러난다는 진술(13:35), 3) 새 계명 본문(13:34-35)과 더불어 이에 대한 설명 본문인 15:12-17에서 말하는 우정과 구약의 우정 관계와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고 전개될 것이다.

구약에서 언약[‘베리트’(ברית)]은 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심적인 구약 메타포로 사용된다.²⁸⁾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고 그의 백성은 제시된 언약에 복종하여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 유지된다(창 17:9). 따라서 언약을 통해 체결된 긴밀한 상호 관계는 기본적으로 권위-복종 구도, 즉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인간의 복종에 기초하고 있다.²⁹⁾ 이때 이러한 언약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미쯔바’(מצוה)]이다. 실제 이들의 상관성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가 지속적인 계명 준수에 따라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며, 이는 특히 신명기³⁰⁾에서 명확히 진술된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은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27) 사실 공관복음의 성만찬 제정과 요한복음의 이별 강화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간접적 관련성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미미하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물론 본 소고는 후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논쟁을 개관하려면 Ibid., 155-160을 참조하라.

28) Gary A. Herion and G. E. Mendenhall, “Covenant,” Anchor Bible Dictionary 1 (New York/London/Toronto/Sydney/Auckland: Doubleday, 1992), 1097-1099.

29) Ibid., 1201.

30) 신명기는 계명의 성경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Ibid.).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신 7:9; cf. 신 4:13, 23, 7:12)

따라서 콜린스가 계명이 지닌 최대 의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 있다. 그가 “계명은 언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³¹⁾고 언급하는 것처럼 언약과 계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역시 자기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친히 수여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권위-복종 구도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에서도 미리 언급했지만 요한의 사랑 계명이 구약 언약 개념과 밀접한 ‘엔톨레’로 지칭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명을 주는 예수의 권위와 그 계명을 받는 제자들의 복종이 강조되고 있다(13:34; 15:12, 17; cf. 14:15, 21, 23; 15:10, 14). 사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계명 이외에 예수의 ‘로고스’(λόγος)도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말은 제자들에게도 부여될 뿐 아니라(14:10; 17:8), 예수의 적대자도 지켜야 할 대상이며(8:37; 10:19),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을 위해 주어진다(4:41; 7:40). 반면 계명은 그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거나(10:18; 12:49, 50), 예수가 제자들에게 줄 뿐, 요한복음에서 계명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적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 체결된 구약의 언약 관계에 상응하는 긴밀한 관계 개념이 예수가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수여했다는 사실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특별한 친밀성은 새 계명의 근원이 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예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15:9),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의 아버지-아들 관계에 근거할 정도로 개인적이며 긴밀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31) Collins, “Commandment,” 1098.

정체성이 대외적으로 드러났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계명, 특히 사랑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외부에 알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13:35; cf. 17:21, 23).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디아데케’라는 용어가 쓰이지는 않지만 구약 언약의 핵심 개념이 요한의 사랑 계명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자들에게만 각별히 주어진 새 계명은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이 계명 준수를 통해 얻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시위하게 된다. 따라서 제자들 사이에,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과 친교를 설명하는 데 구약의 언약 관계보다 더 적절한 메타포는 없다는 레카 첸나투(Rheka M. Chennattu)의 주장은 옳다.³²⁾

여기서 추가로 주목할 만한 점은 요한의 사랑 계명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언약적 관계가 우정이라는 개념으로 기술된다는 사실이다(“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필로이 무’(φίλοι μου)]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필루스’(φίλους)]라 하였노니”(15:14-15)).³³⁾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주인의 뜻을 알 수 없는 주종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모든 것이 소통되는 우정 관계라는 보다 친밀한 관계로 초청된다(15절).³⁴⁾ 이렇게 우정이 기존의 긴밀한 관계에서 보다 발전된 관계라는 함의는 구약에서도 명확히 나타

32) Rheka M. Chennattu, *Johannine Discipleship as a Covenantal Relationship* (Peabody: Hendrickson, 2006), 96, 117-118.

33) Collins,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217-256은 새 계명의 새로움의 문맥이 15장이 아닌 13장이라고 주장하지만, 두 장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랑 계명의 내용이나 계명의 문학적 구조를 감안할 때 13장에서 소개된 새 계명이 15장에서 보다 발전되어 기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4) 그러나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우정 관계 형성이 수직적 혹은 종속적 관계의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정 관계가 전적으로 예수에 의해 맺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종속적 개념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긴장은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명시된다(cf. 김동수, 『요한신학 렌즈로 본 요한복음』 (서울: 솔로몬, 2006), 188).

난다.³⁵⁾ 분명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와 우정 관계는 서로 동일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 개인(예를 들어 노아(창 6:18; 9:9), 이삭(창 17:21), 아브라함(창 15:18; 17:2, 4, 9, 14))이나 이스라엘 전체(신 4:13, 23; 5:2)와 체결되는 긴밀한 관계라면, 후자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별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와 관련된 아브라함(창 18:2; 대하 20:7; 사 41:8; cf. 약 2:23), 모세(출 33:11; 신 34:10), 욥(욥 16:21; 29:4)은 특히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다. 예를 들어 모세는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며[출 33:11; 아브라함(창 17:2; cf. 17: 15, 1, 22) 1,³⁶⁾ 그 대화 내용이 때로는 매우 솔직하며 대담한 간언(expostulation)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되는 친구 모세의 요청을 허락한다(창 18:23-33; 출 33:12-17).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인간의 복종이라는 기본적인 수직적 구도가 배제될 수는 없지만, 보다 부각되는 것은 그들이 독점적으로 얻게 된 특권적인 친밀함이다. 이런 점에서 모세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자 보다 긴밀한 우정 관계, 즉 언약적 우정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위에서 제시한대로 새 언약의 관계로 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³⁷⁾ 예수가 친구를 위해 버린 가장

35) 한편 Gary R. O'Day, "Jesus as Friend in the Gospel of John," *Interpretation* 58 (2004), 144-157은 요한의 우정 개념을 그레코-로마 문화에 비추어 해석하여 상호 간의 유사성(솔직함과 대담함)을 부각시키는 흥미로운 연구이나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분석이 철저히 배제된 점이 아쉽다. 본 소고는 그레코-로마의 우정 개념의 영향을 부정하거나 간과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다만 짧은 지면을 통해 보다 분명한 구약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36) 하나님과 모세 혹은 아브라함의 대화는 William H. Irwin, "The Course of the Dialogue between Moses and Yhwh in Exodus 33:12-17," *CBQ* 59 (1997), 629-636; U. M. Kaufmann, "Expostulation with the Divine," *Interpretation* 18 (1964), 171-182; Bernhard W. Anderson, "Abraham, the Friend of God," *Interpretation* 42 (1988), 353-366을 보라.

37) Chennattu, *Johannine Discipleship as a Covenantal Relationship*, 96. 첸나투(Chennattu) 역시 사랑 계명의 새로움을 새 언약이라는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지

위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세운(15:13), 보다 발전된 새 언약적 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⁸⁾

4. 새 계명: 옛 계명과 긴장

한편 종말론적 새로움과 관련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종말론적 새 시대를 연 예수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의 사랑(15:9)을 기준이자 모범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 계명을 새 계명이라 지칭하고 있다면, 왜 예수의 로고스에 대해서는 ‘카이노스’와 연결시키지 않는가? 예수는 위에서 내려 온 유일한 사자이며 그의 로고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하므로(3:34; 12:49-50; 14:10, 24; 17:8), 예수와 그의 로고스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로고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새 시대를 열었다.³⁹⁾ 그럼에도 예수의 로고스는 한 번도 ‘로고스 카이노스’(λόγος καινός)로 지칭되지 않으며, 대신 그의 말(4:31)이나 내 말(5:24; 8:31, 37, 51; 12:48)이라고 표현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사랑 계명 이외에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⁴⁰⁾ 예수의 계명(들) 역시 기존의 율법을 대신하여 하나님

않은 점을 인정하지만, 아쉽게도 그 불충분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97).

38) 다만, 이러한 언약적 우정 관계의 성립이 외인에 대한 배타주의를 표방하거나 예수의 열 두 제자로만 구성된 새 공동체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수의 새 사랑 계명을 통해 새 공동체로 세워진 열두 제자들(inner circle)의 경계선은 후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상호 사랑이 지속적으로 실천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그려져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친구라 불린 최초의 제자들은 새 계명에 근거하여(15:14) 새롭게 예수와 우정 관계를 맺게 될 후대 신앙 공동체의 예표(prefiguration)로 볼 수 있다. 참고로 J. E. Lapsley, “Friends with God?: Moses and the Possibility of Covenantal Friendship,” *Interpretation* 58 (2004), 128, 각주 31은 구약의 하나님이 세운 우정 관계 역시 모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그 신적 제안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없는 그들의 중 의식(servitude)이 문제가 된다고 제안한다.

39) Smith,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82, 91, 94를 보라.

혹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지만(예수의 말도 마찬가지, 14:23, 24) 단 한 번도 형용사 ‘카이노스’로 수식되지 않는다. 초지일관 내 계명(14:15, 21; 15:10)이라고 기술된다.

이러한 점은 예수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정체성에서도 적용된다. 예수는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14:6) 유명한 자기 계시적(self-disclosing) 선언을 통해 이전의 율법이 아닌 예수만이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중재자임을 알린다(“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유일성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서 율법이라는 옛 방법이 아닌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다. 그러나 14:6뿐 아니라 요한은 어디에서도 예수를 가리켜 새 길ियो 새 진리요 새 생명이라고 진술하지 않는다.⁴¹⁾

결과적으로 요한이 사랑 계명만을 ‘카이노스’로 수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명만이 요한복음에서 종말론적으로나 기독교론적으로 새롭다고 볼 수는 없다. 사랑 계명 이외의 가르침[계명(들)과 말(들)]이나 예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독보성과 절대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새로운 중재자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주지해야 할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카이노스’라는 수식어가 사랑 계명의 전유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사랑 계명만 새 계명이라고 묘사하는 요한의 독특한 표현을 종말론이나

40) Urban C. von Wahlde, *The Johannine Commandments: 1 John and the Struggle for the Johannine Tradition* (New York: Paulist, 1990), 24-32는 14:15, 21(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에서 말하는 계명은 같은 장 23-24절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를 내용으로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15, 21절이 23-24절을 설명하고 있다기 보다는 서로 유사한 구조 속에서 같은 내용(복종-사랑의 조건적 관계)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말과 계명은 예수의 총체적 가르침을 가리키는 표현의 차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41) 이와 유사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는 자기 계시적 선언을 통해 자신이 유일한 선한 목자(the good shepherd)임을 밝힌다[Ἐγὼ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10:11)].

기독론, 새 언약과 관련된 새로움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다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에 예수와 관련된 신학적인 새로움이 함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옛 계명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소고의 주장이다. 이러한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긴장 관계는 요한복음에서는 명시되지 않지만 유사한 사랑 계명을 권고하는 요한 서신에서 명확히 언급된다.

내가 새 계명(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ἐντολὴν παλαιάν)이니 이 옛 계명(ἡ ἐντολὴ ἡ παλαιά)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요1 2:7-8; cf. 요2 5절⁴²).

여기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당시 공동체가 이미 익숙했던 전통적인 구약 계명을 가리킬 수도 있을지 모르나,⁴³ 뒤이어 나오는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을 고려할 때 그들의 믿음이나 공동체가 시작되던 시기에 전해 들었던, 예수가 지상 사역 중에 선언한 사랑 계명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요한복음의 새 계명이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옛 계명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 서신의 옛 계명은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하다. 8절에서 뒤이어 설명하는 것처럼 그 새로움은 처음부터 명령된 사랑이 예수 안에서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⁴⁴ 이렇게 요한 서신의 새 계명은 옛 계명과의 관계, 즉 공동

42)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43) Stephen S. Smalley, *1, 2, 3 John*, WBC 51 (Dallas/Texas: Word Books, 1998), 43.

44) 스몰리(Smalley)가 지적하는 것처럼(*1, 2, 3 John*, 43) 관계 대명사가 중성이므로 선행하는 여성 명사 새 계명 자체를 직접 수식하기보다는 새로움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체 안에서 실현되는 계명과 지상 예수가 수여한 계명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요한 서신 내에서의 새 계명과 옛 계명 사이의 긴장 관계는 요한복음의 새 계명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요한복음 13:34의 새 계명이 예수의 지상 사역 시점에서 주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그것과 긴장 관계에 있는 옛 계명은 구약의 사랑 계명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⁴⁵⁾ 다시 말해, 요한 서신의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당시 공동체에 잘 알려진 요한복음의 사랑 계명을 가리킨다면, 요한복음의 새 계명이 전제하고 있는 옛 계명은 당시 잘 알려진 구약의 옛 계명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cf. 레 19:18). 이러한 주장은 울리히 루즈(Ulrich Luz)와 루돌프 슈멘트(Rudolf Smend)의 말을 참조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요한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레위기 19:18의 이웃 사랑 계명을 몰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사랑 계명이 새롭다고 소개할 때는 구약의 사랑 계명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⁴⁶⁾

물론 이웃 사랑 계명(레 19:18)의 축어적 인용(verbatim quotation)이 공관복음에만 나타날 뿐(막 12:30-31; 마 22:37; 눅 10:27)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운은 구약이 요한복음의 사

45) Von Wahlde, *The Johannine Commandments: 1 John and the Struggle for the Johannine Tradition*, 17-18, 59, 85는 요한복음의 새 계명 본문(13:34-35; 15:12-17)이 원래 복음서에는 없었으나 후대에 쓰인 요한 서신의 저자가 이곳에 삽입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새 계명의 새로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한복음에는 없고 요한 서신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의 사랑 계명이 새로운 것은 그 계명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본 소고를 통해 옳지 않음이 드러난다. 새 계명이 요한복음의 맥락(베드로의 동문서답을 통한 미흡한 제자도 강조)이나 주제(사랑 주제의 지배적 위치)와 일치한다는 주장은 Augenstein, *Das Liebesgebot im Johannesevangelium*, 38-40, 92; D. Rensberger, "Love for One Another and Love for Enemies," William M. Swartley, ed., *The Love of Enemy and Nonretaliation*, SPS 3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299-303, 305를 참조하라.

46) Ulrich Luz and Rudolf Smend, *Gesetz* (Stuttgart: Kohlhammer, 1981), 124.

랑 계명에 담긴 새로움을 조명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⁴⁷⁾ 많은 학자들이 이 같은 견해를 따라 그 새로움을 유대교 전통에서 분리시켜 요한의 사랑 계명의 독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⁴⁸⁾ 그러나 이것은 요한의 구약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예를 들어 요한은 구약의 기독교적 성취라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구약의 구체적 본문을 인용하기도 하지만(7:42; 10:35; 13:18; 19:24), 인용 본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든 경우도 보여주고(7:38; 17:12; 19:28; 20:9), 구약 내용으로 추정되나 불분명한 암시를 사용하기도 한다(6:30).⁴⁹⁾ 뿐만 아니라 예수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기록하고 있는 7-10장에는 ‘헤 그라페’(ἡ γραφή)를 지칭하거나 구약 본문의 축어적 인용이 없으면서도 십계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안식

47)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2, 613. 참고로 브라운(Brown)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미미하며 힐렐의 *Pirqa Aboth* 1.12과 같은 랍비 전승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Schrage, *The Ethics of the New Testament*, 305-306 역시 구약이 윤리적 명령이나 모범이라는 의미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약 율법은 요한의 윤리에 대해 중요성을 띠지 않으며, 특히 요한복음에는 사랑의 법이 율법의 요약이라는 언급도 없다고 지적한다. Cf. David Wenham, “The Enigma of the Fourth Gospel: Another Look, in *Understanding, Studying and Reading*,” C. Rowland and C. H. T. Fletcher-Louis, ed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18.

48) Severion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Leiden: E. J. Brill, 1975), 444-445 역시 새 계명이 레위기 19:18의 ‘엔톨레’(ἐντολή) 및 일반적인 율법을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서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Segovia, *The Farewell of the Word*, 76, 각주 37; Loader, *Jesus’ Attitudes towards the Law*, 478;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2, 613; Furnish, *The Love Command in the New Testament*, 138, 각주 15도 보라.

49) Judith M. Lieu, “Narrative Analysis and Scripture in John,” Steve Moyise, ed.,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JSNTSup 18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45는 요한복음 6:30과 같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암시에서 (정확한 구약 본문을) 찾고자 하는 학자들의 창의력을 규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류(Lieu)는 학자들의 차트 무분별할 수 있는 시도를 경고하는 것일 뿐, 밝혀지지 암시와 구약과의 단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약 언어와 주제가 표면에 드러나진 않으나 요한복음 신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다.

일(7:23; cf. 5:18); 부모 공경(8:49; cf. 5:23); 살인(7:19; 8:40, 44; cf. 5:18); 간음(8:41); 절도(10:1, 8, 10); 거짓 증언(8:14, 44), 탐냄(8:44).⁵⁰⁾ 따라서 요한의 사랑 계명의 새로움과 관련해서 축어적 인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구약의 옛 계명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요한의 새 계명 역시 전반적인 요한의 구약 사용 방법에 비추어 옛 사랑 계명과의 관계성을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요한의 사랑 계명이 공관복음처럼 구약의 사랑 계명 전문을 인용하진 않지만, 1) 유대교 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 내에서 매우 높았던 레위기 19:18의 중요성 인식,⁵¹⁾ 2) 사랑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점, 3) 주제뿐 아니라 컬페퍼(R. A. Culpepper)의 지적처럼 요한의 사랑 계명이 명령형, 목적어, 수식어로 이루어진 레위기 19:18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⁵²⁾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일찍이 에드윈 호스킨스(Edwin Hoskyns)도 이러한 구조상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기독교적 새로움과 더불어 사랑 범위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옛 계명에 대한 새로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랑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구약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했지만 새 법(사랑 계명)은 제자들이 자신보다 형제들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⁵³⁾ 결과적으로

50) George J. Brooke, "Christ and the Law in John 7-10," Barnabas Lindars, ed., *Law and Religion: Essays in the Place of the Law in Israel and Early Christianity*, (London: SPCK, 1988), 102-112는 8:40-49에만 적어도 다섯 개의 계명이 암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51) Cf. *Test. Isr.* 5:2; Philo, *Spec. Leg.* 1.299-300; *Virt.* 102-103; CD 6:20; 마가복음 12:29와 병행구절; 로마서 13:9-10.

52) R. A. Culpepper, "Anti-Judaism in the Fourth Gospel as a Theological Problem for Christian Interpreters," R. Bieringer, D. Pollefeyt, and F. Vandecasteele-Vanneuville, eds., *Anti-Judaism and the Fourth Gospel: Papers of the Leuven Colloquium 2000* (Assen: Royal Van Gorcum, 2001), 89. 또한 Augenstein, *Das Liebesgebot im Johannesevangelium*, 159-164과 Collins,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238을 보라.

53) E. C. Hoskyn, *The Fourth Gospel*. F. N. Davey, ed. (London: Faber and Faber,

사랑 계명의 새로움에 담긴 독특성은 요한 서신의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용에 비추어 옛 것과의 단절이 아닌 긴장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무리가 아님을 볼 수 있다. 이 긴장은 새 계명이 옛 계명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그 옛 계명과 완전히 다른 계명이어도 안 되고, 동시에 새 계명임을 강조하려면 옛 계명의 축여적 인용이나 단순한 재진술이어도 안 된다는 요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 계명은 요한의 신학적인 입장뿐 아니라 구약의 옛 계명 때문에도 붙여진 명칭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의 새 계명은 구약 계명의 재해석이자 실현, 성취를 의미하며, 이것은 예수의 새로운 실재와 그에 의해 이 땅에서 시작된 새 시대를 고려할 때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상호적 관계가 형성된다. 전자가 후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후자는 예수의 자기 계시적 사역을 통해 도래한 새 시대의 계명으로 재해석되고 실현된다.⁵⁴⁾

1954), 451 [cf. C. Spicq, *Agape in the New Testament* 3, M. A. McNamara and M. H. Richter, trans. (St. Louis: B. Herder Book Co., 1966), 53-54]. 호스킨스는 “여기에 따라서 구약의 이웃 사랑 계명이 상호 사랑 계명으로 보충 (supplementation)된 것이 퇴보적 혹은 한정적인 배타주의(exclusivism)를 의미하지 않는다. 형제를 향한 사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려는 목적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또한 R. Schnackenburg, *The Moral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324; 박창영, 『요한복음』, 337 참조; 다만 신성중, 『요한복음 강해』 (서울: 엠마오, 1986), 160에서처럼 새 계명의 사랑 대상이 공관복음 ‘원수’도 포함된다는 단정은 요한복음의 문맥이나 사용된 단어 ‘서로’를 고려할 때 무리한 주장이다. 새 계명과 구약과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Fensham, “Love in the Writings of Qumran and John,” 67-77과 J. J. Kanagaraj, “The Implied Ethics of the Fourth Gospel: A Reinterpretation of the Decalogue,” *Tyndale Bulletin* 52 (2001), 33-60도 보라. 오겐스타인 (Augenstein)은 요한의 사랑 계명이 웨마(신 6:4)와 이웃 사랑 명령(레 19:1)에서 직접적으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Das Liebesgebot im Johannesevangelium*, 159-164).

54) Smith, *Theology*, 146-147 참조.

5. 결론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의 계명에 담긴 새로움은 요한복음 내에서의 기독교론적, 종말론적, 관계적 측면의 다양한 의미가 담긴 개념이다. 또한 요한의 사랑 계명은 전례 없는 요한의 독립적인 창조물도 옛 계명의 의존한 단순 반복도 아닌, 옛 계명과 긴장 관계에 있는 새 계명이다. 새 시대의 예수 추종자들은 그의 모범적 사랑에 기초한 상호 사랑 실천으로 예수의 새 계명을 준수하여 그들 안에서 새로운 패턴의 연합이 형성됨과 동시에 예수와 긴밀한 새 언약적 우정 관계를 누린다. 이는 궁극적으로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우정 관계의 실현(cf. 17:21, 23)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예수 당시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독자들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 고백으로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축출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축출되었지만(9:22; 16:42; 16:2), 사랑 계명이라는 특별 선물을 받은 그들은 소외된 것도 아니며 결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도 않는다(14:18).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상호간의 깊은 결속과 예수와의 긴밀한 관계를 경험하여 결국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이를 세상에 시위하게 될 것이다(cf. 13:35; 17:21, 23).

<주요어>

사랑, 새로움, 계명, 연합, 언약, 우정, 기독교론, 종말론, 구약의 이웃 사랑

<Key Words>

Love, newness, commandment, unity, covenant, friendship, christology, eschatology, neighbor love in the Old Testament

* 접수일 2010년 1월 30일, 수정일 2010년 3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0년 3월 26일

참고문헌

- 김기원, 서영환,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 구조론적 입장에서 본 요한복음 13장-17장』, 서울: 엘멘, 2000.
- 김동수, 『요한신학 렌즈로 본 요한복음』, 서울: 솔로몬, 2006.
- 김득중, 『요한의 신학』, 서울: 컨콜디아, 1996.
-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1.
- 박창영, 『요한복음』, 안양: 성결대 출판부, 2008.
- 소기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새로움,” 『성서마당』 34 (1999), 8-11.
- 신성중, 『요한복음 강해』, 서울: 엠마오, 1986.
- Anderson, Bernhard W., “Abraham, the Friend of God,” *Interpretation* 42 (1988), 353-366.
- Augenstein, J., *Das Liebesgebot im Johannesevangelium*, Stuttgart: Kohlhammer, 1993.
- Beasley-Murray G. R., *John*, WBC 36, Dallas: Word Books, 1987.
- Behm, Johannes, “καίνός,”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3, Grand Rapids: Eerdmans, 1974, 447-454.
- Beutler, Johannes, “Das Hauptgebot im Johannesevangelium,” Karl Kertelge, ed., *Das Gesetz im Neuen Testament*, Freiburg/Basel/Wien: Herder, 1986, 222-236.
- Brooke, George J., “Christ and the Law in John 7-10,” Barnabas Lindars., ed., *Law and Religion: Essays in the Place of the Law in Israel and Early Christianity*, London: SPCK, 1988, 102-112.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 AB 29, New York: Doubleday, 1970.
- Brunson, Andrew C. *Psalm 118 in the Gospel of John: An Intertextual Study on the New Exodus Pattern in the Theology of John*, WUNT 158, Tübingen: Mohr Siebeck, 2003.
- Bultmann, R., *The Gospel of John*, G. R. Beasley-Murray, trans., Basil Blackwell: Oxford, 1971.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 Chennattu, Rehka M., *Johannine Discipleship as a Covenantal Relationship*, Peabody: Hendrickson, 2006.
- Collins, R. F., "Commandment," *Anchor Bible Dictionary* 1, New York/London/Toronto/Sydney/Auckland: Doubleday, 1992, 242.
- Collins, R. F.,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John 13:34)," *These Things Have Been Written: Studies on the Fourth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1990, 217-256.
- Culpepper, R. A., "Anti-Judaism in the Fourth Gospel as a Theological Problem for Christian Interpreters," R. Bieringer, D. Pollefeyt, and F. Vandecasteele-Vanneuville, eds., *Anti-Judaism and the Fourth Gospel: Papers of the Leuven Colloquium 2000*, Assen: Royal Van Gorcum, 2001, 67-91.
- Dunn, J. D. G., "The Washing of the Disciples' Feet in John 13:1-20," *ZNW* 61 (1970), 247-252.
- Fensham, F. C., "Love in the Writings of Qumran and John," *Neotestamentica* 6 (1972), 67-77.
- Furnish, Victor P., *The Love Command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72.
- Harrisville, R. A., "The Concept of Newness in the NT," *JBL* 74 (1955), 69-79.
- Herion, Gary A. and G. E. Mendenhall, "Covenant," *Anchor Bible Dictionary* 1, New York/London/Toronto/Sydney/Auckland: Doubleday, 1992, 1097-1099.
- Hoskyns, E. C., *The Fourth Gospel*, F. N. Davey, ed., London: Faber and Faber, 1954.
- Irwin, William H., "The Course of the Dialogue between Moses and Yhwh in Exodus 33:12-17," *CBQ* 59 (1997), 629-636.
- Kanagaraj, J. J., "The Implied Ethics of the Fourth Gospel: A Reinterpretation of the Decalogue," *Tyndale Bulletin* 52 (2001), 33-60.
- Kaufmann, U. M., "Expostulation with the Divine," *Interpretation* 18 (1964), 171-182.
- Kotila, M., *Umstrittener Zeuge: Studien zur Stellung des Gesetzes in der johanneischen*

- Theologieggeschichte, Annales Academiae Scientiarum Fennicae Dissertationes Humanarum Litterarum* 48, Helsinki: Suomalainen Teideakatemia, 1988.
- Lacomara, Aelred, "Deuteronomy and the Farewell Discourse," *CBQ* 36 (1974), 65-84.
- Lapsley, J. E., "Friends with God?: Moses and the Possibility of Covenantal Friendship," *Interpretation* 58 (2004), 117-129.
- Lieu, Judith M., "Narrative Analysis and Scripture in John," Steve Moyise, ed.,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JSNTSup 18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44-163.
- Lincoln, A. 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London/New York: Continuum, 2005.
- Lindars, B., *John*, Sheffield: JSOT Press, 1990.
- Loader, William R. G., *Jesus' Attitude towards the Law*, WUNT 97, Tübingen: Mohr Siebeck, 1997.
- Luz, Ulrich and Rudolf Smend, *Gesetz*, Stuttgart: Kohlhammer, 1981.
- Nissen, Johanne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New Testament Love Command in Relation to Hellenistic Judaism," Peder Borgen and Soren Giversen, eds., *The New Testament and Hellenistic Judaism*, Oxford: Aarhus University Press, 1995, 123-150.
- O'Day, Gail R., "Jesus as Friend in the Gospel of John," *Interpretation* 58 (2004), 144-157.
- Pancaro, Severion,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Leiden: E. J. Brill, 1975.
- Piper, John, 'Love Your Enemies': *Jesus' Love Command in the Synoptic Gospels and in the Early Christian Paraenesis*, SNTSMS 3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Rensberger, D., "Love for One Another and Love for Enemies," William M. Swartley, ed., *The Love of Enemy and Nonretaliation*, SPS 3,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297-313.
- Schnackenburg, R., "Mitmenschlichkeit im Horizont des NT," G. Bornkamm, ed., *Die Zeit Jesu*, Freiburg: Herder, 1970, 70-92.

- Schnackenburg, R., *The Moral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London: Burnes & Oates, 1965.
- Schrage, W., *The Ethics of the New Testament*, D. A. Greene,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Segovia, F. F., *The Farewell of the Word: The Johannine Call to Ab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Smalley, Stephen S., *1, 2, 3 John*, WBC 51, Dallas/Texas: Word Books, 1998.
- Smith, D. M.,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7.
- Spicq, C., *Agape in the New Testament*, 3, M. A. McNamara and M. H. Richter, trans., St. Louis: B. Herder Book Co., 1966.
- Thompson, Marianne. M., “‘His Own Received Him Not’: Jesus Washes the Feet of the Disciples,” Ellen F. Davis and Richard B. Hays, eds., *The Art of Reading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2003, 258-273.
- Van der Watt, Jan G., “Ethics and Ethos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ZNW* 97 (2006), 147-176.
- Von Wahlde, Urban C., *The Johannine Commandments: 1 John and the Struggle for the Johannine Tradition*, New York: Paulist, 1990.
- Voorwinde, Stephen, *Jesus’ Emotions in the Fourth Gospel*, LNTS 284,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5.
- Wenham, David, “The Enigma of the Fourth Gospel: Another Look, in Understanding, Studying and Reading,” C. Rowland and C. H. T. Fletcher-Louis, ed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02-128.
- Westcott, B. F., *The Gospel of St. John: The Authorised Vers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 London: James Clarke, 1958; org. ed. 1881.
- Wright, N. T.,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초록>

요한복음의 새 계명에 담긴 새로움의 의미

우성훈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사랑 계명에 담긴 새로움은 구약의 옛 계명과의 긴장 관계라는 틀 안에서 요한복음뿐 아니라 유사한 언어가 등장하는 요한 서신과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사랑 계명이 전례가 없는 요한의 독립적인 창조나 옛 계명에 의존한 단순 반복이 아닌, 옛 계명과 긴장 관계에 있는 새로움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새로움은 요한복음 내에서 종말론적이며 관계적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적 의미와 연결된 복합적인 개념이다. 종말론적 새 시대의 예수 추종자들은 그의 모범적 사랑에 기초한 상호 사랑 실천을 통해 예수의 새 계명을 준수하여 그들 안에서 새로운 패턴의 연합이 형성됨과 동시에 예수와 긴밀한 새 언약적 우정 관계를 누린다. 비록 예수 당시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독자들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 고백으로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축출 당할 위기에 직면하거나 이미 축출되었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상호간의 깊은 결속과 예수와 긴밀한 관계를 경험하여 결국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이를 세상에 시위하게(demonstrate) 될 것이다.

<Abstract>

The Meaning of “Newness” in the New Commandment in the Fourth Gospel

Dr. Sung-Hoon Woo
(Sunkyul University)

The newness of the Johannine love command is not characterized by the notion of the sense of “unprecedented” or “independent creation” but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Gospel and the 1 John and importantly the tension in which it maintain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with the Old Testament. The new commandment is closely related to a new aspect of covenant and friendship in the eschatologically new period that Jesus inaugurated. By virtue of obedience to this new command, Jesus’ followers are to enter into a new scheme of identity and intimacy in relation to Jesus. Of paramount significance is the fact that this covenantal, eschatological and communal newness emanates from Jesus’ love that is a new source, standard and model of human love. Consequently, the new command of love can be defined as a norm of new covenantal friendship, which embraces eschatological, christological and communal newness. Although the disciples of the earthly Jesus and the readers of John experienced expulsion from the boundaries of Judaism, they would participate in the divine unity, which the contemporary Jews would long for but failed to have, and demonstrate it to the whole world.